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김_준
파견국가	프랑스	파견도시	파리
파견대학	IGS	파견기간	9개월
귀국여부	귀국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학교 위치는 파리 10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이 이점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본관과 몇 개의 부속 건물에서 수업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파리라는 특성상 여기저기를 둘러보기 위해 돌아다니므로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 분위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 설명도 훌륭합니다. 다만 외국의 학생들이 수업 중에 많이 떠드는데 몇몇 교수님은 전혀 제제하지 않아 다소 시끄러운 환경이 있습니다. 프랑스,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아프리카, 유럽 등등 세계 각지에서 오는 교환학생들이 있어 인종차별 같은 분위기는 없고 오히려 타지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p>
2016-2학기 수업	<p>2016-2학기에는 Accounting, International relation, Communication, Psychology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Accounting, Communication, Psychology 과목 모두 추천 할만 합니다. 단 심리학 과목은 개인차라고 생각합니다.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과목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회계학 원리 파트에 대해 다룹니다. 다만 수준 높은 학생들이 많아 학점 따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화 수업 또한 추천하고 싶습니다. 토론이 많고 발표가 격주 단위로 있어 ppt준비하기 바쁘고 발표를 해야</p>

	<p>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좋은 경험이고 스피킹 실력에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별과제로 많이 나오는데 다들 아시는 조별과제의 단점이 매우 많이 부각될 수 있으니 팀원을 잘 고르셔야 합니다. International relation 과목은 매우 비추천 합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학과 시작 전 볼 수 있는 계획표와 달리 세계의 역사와 정치적 갈등 관계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계획표에는 국제통상학과 과목인 세계화와 비슷하게 써 있으나 사실상 내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각종 외국 기사에 대해 조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라 내용은 알차지만 매우 어렵고 따라가기 벅차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p>
2017-1학기 수업	<p>2017-1학기에는 E-business, Elementary French, International Business, Operation management 수업을 들었습니다. 먼저 E-Business 수업은 매우 추천하고 싶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학교에서도 유명하고 학생들도 좋아할 만큼 인기가 좋은 교수님 이십니다.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고 중간고사는 오픈북 테스트로 보았습니다(다만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 기말고사는 조별과제로 대체하였는데, 자신만의 인터넷 비즈니스를 가상으로 해 보는 것으로 매우 유익한 과제였습니다. Elementary French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할 과목입니다. 다만 본인이 프랑스어에 정말 관심이 많고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거나 이미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면 아주 좋은 수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설명이 모두 들어옵니다. 진도도 매우 빠르고 학과에 도움을 청해도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수업시간에 뭘 알아먹질 못하니 정말 무의미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International Business 수업은 국제통상학과라면 들어볼 만 합니다. 다만 담당 교수님이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셔서, 다음에 누가 오실지는 잘 모르겠고, 그 분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Operation management과목 또한 추천할 만한 과목입니다. 경영학 관련 수업으로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교수님이 유쾌하고 친구들과 상의해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조별과제로 사</p>

	<p>업계획서 작성이 나오는데 내용이 방대하고 까다롭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는 과제였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 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주로 Shara pax 교수님을 필두로 처음에 입학 허가서, 학점 인정 신청서 등을 교류하는 교수님 분들께 문의하거나 학과 교수님께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있습니다.</p> <p>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학과 생활에서의 유의점, 참고사항 일정 등을 설명해 줍니다. 이 때 중고 서적을 판매하는 기간이 언제인지 알 수 있으니 잘 매모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p> <p>IGS가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로 넘치기 때문에 교환학생이라고 특별히 다른 대우를 해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로, 제가 붙어 수업이 너무 어려워 학기 첫 주에 Shara Pax 교수님을 인도네시아에서 온 다른 교환학생 친구와 도움을 청하러 갔으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는 못했고 알아서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수업 중 내용이 너무 어렵다면 차라리 담당 교수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과 교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담당 교수님들은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시고, 질문 받는 것을 반기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p> <p>그 외 동아리 비슷한 부서가 있습니다. 스포츠, 여행 등</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날은 매우 좋고 따뜻하나, 비가 많이 옵니다. 어두운 날씨를 좋아하는 저는 만족했지만 몇몇 학생들은 우울증도 겪는다 하니 유의 바랍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늘 테러의 위험이 도사립니다. 소매치기도 많고 외각의 경우 난민들이 많아 위험합니다. 사실 저는 소매치기를 다한 적도, 위협을 받은 적도 없으나 주위에서 많이 당하는 걸 봅니다. 본인이 안전에 유의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난민들은 피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 밤에 차 유리를 깨고 음식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알아서 조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사릴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달 정도 있으면 다들 현지인 같아져 건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O ) 기타( )</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프랑스 존이라는 사이트에서 한인 민박에 하숙 하는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방 구하기가 쉽지 않아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숙소 찾기가 어려워 일단 보이는 곳에 넣었습니다. 장점은 한식을 계속 먹을 수 있다는 점과 혼자 갔음에도 관광객들과 계속 만 날 수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 다. 매달 700유로에 보조금도 못 받았지만, 아침 저녁이 한식의</p>

	<p>로 나와 식비 부담이 줄었고, 수도세 인터넷비, 관리비 등은 무료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p> <p>보조금은 교환학생이든 일반 학생이든 누구나 프랑스 정부로부터 주택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학생이 주거하는 곳이 저와 같이 하숙이 아닌 방 임대인 경우나 기숙사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학교 기숙사 및 사설 기숙사 포함</p>
식사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p> <p>외부식당 ( ) 직접 요리 ( o ) 기타 ( o )</p> <p><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저는 민박집 월세에 아침 점심이 포함되어 지정된 식사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잘 나와서 만족했습니다. 종종 집세를 덜 받고 제가 요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점심 같은 경우는 학교 근처 샌드위치 식당을 이용하거나 제가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식비는 레스토랑에 가서 먹는 게 아니라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식이 되는 바게트 빵이 0.7유로에서 0.9유로로 한화로 1000원 정도 하는데 한 개 사면 두 끼니는 먹을 정도입니다. 물론 바게트 단일이 아닌 샐러드 같은 것을 같이 먹었을 경우. 샐러드도 2유로에서 5유로 안쪽으로 5천원 정도 값에 나름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더라도 값이 적당한 편입니다. 특정 물품은 한국보다 싸다고 느껴집니다.</p>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교통 권으로는 까르네라는 티켓이 있지만 주로 나비고 카드를 정기적으로 끊어 사용할 것입니다. 이 또한 정부 지원이 가능하니 인터넷에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약 1300만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140 만원	에어프랑스를 이용했습니다.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IGS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지는 않으나 해외로 나갈 때 필요한 보험 정도가 있겠습니다.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13,800원
숙소	매달 700E(단 숙소마다 다름)	
식비	매 달 30E 내외	저는 아침 저녁 숙소에서 제공
교통비	나비고 한달 비용 73E	
책값	30만원 내외	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쌌니다. 저 가격은 책 값을 정가에 샀을 경우이고 필히 학교에서 진행하는 중고 책 판매에 참여하세요. 매우 중요!

		혹은 인터넷 구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책은 한 권에 100E 즉 10만 원 가까이 하는 것도 있습니 다.
기타1		
기타2		
합계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학생 비자 관련해서 잘 알아가시고, 프랑스가 학생 지원이 은근 많습  
니다. 잘 찾아가셔서 이득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랑스는 행정처리가  
느려 터졌습니다. 늘 빠르게 행동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학생비  
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로 등기 우편 가는데 한달 이상 걸립니  
다. 한국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지간하건 죄다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행정 처리인데 답답하실 겁니다. 집 구할 때 싸다고 무고건 가지 말고  
위치, 안전, 교통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프랑스 파리가 테러 때문에 위험할 것 같지만 우리가 북한 핵 위험 속에서 살듯이, 별거 없습니다. 본인이 조심하면 충분히 대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행하기도 좋고 친구들도 친절해 재미있었습니다. 수업내용도 알차고 외국에서 수업 듣는 다는 느낌이 짝짝 듭니다. 특히 토론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위험하다고 너무 집에만 있으면 정말 아쉬웁니다. 이왕 간거 당당하게 돌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가게 될 지 모르지만, 기회가 생기면 가고 싶습니다. 토폴, 면접 등 고생한 보람은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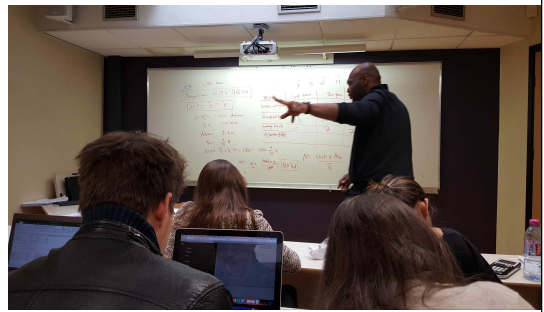
IGS 본관입니다. 첫 오티의 시작을 여기서 합니다. 그 외 학과 사무실 등 메인 기능을 하는 건물입니다.



오티는 몇 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 중 유람선 타는 일정이 있는데 친구들도 사귀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니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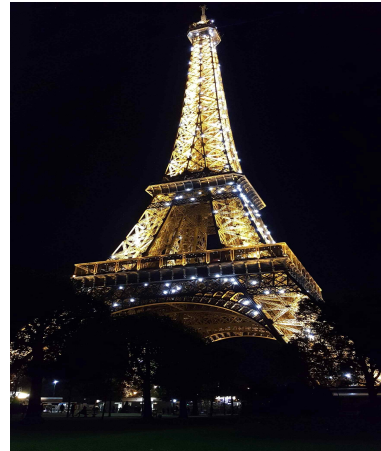
학생증이자 학교 출입증입니다. 태러 이후 입장을 더욱 통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학기 초 사진을 찍고 만드는데 그 전에는 사전에 메일로 받은 종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드에게 보여드려야 입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Operation Management 수업 때 찍은 사진입니다. 칠판 내용을 찍으려다 잘못 찍은 것인데 수업 진행하는 모습인 것 같아 올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업 중 노트북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필기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걸리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는 요리사 형이 해준 프랑스식 음식입니다. 매 식사를 이렇게 먹진 않습니다. 저는 민박집에서 하숙을 했기 때문에 지정된 식사를 했지만 종종 해먹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로 빵과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5E 안쪽으로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에펠탑 야경입니다. 학교에서 멀지 않아 친구들끼리 자주 가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과 공부도 좋지만 친구도 만들고 여행도 다니면서 좋은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되는 교환 학생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